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면서 천국의 왕이신 메시아 즉, 예수님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도래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인간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의 구조이다. 즉, 그 나라 완성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 자체이다. 신학자 조지 래드(George E. Ladd)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실체이면서(마태 12:28), 미래적 축복(고전 15:50), 중생자들의 체험(요한 3:3) 내면적 축복(로마 14:17)이며 또한 이 세상 나라의 통치(계시록 11:15)와도 연관되게 된다고 말한다.

선교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이어야 한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외치신 천국 복음을 스스로가 경험된 복음이어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요한 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확신 있는 메시지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래의 주민들을 주께로 인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깨닫은 확신적 복음이었기 때문이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오직 인간의 죄의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하다고 바울은 설파한다 (로마 3:22).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그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로마 3:27)으로 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인간에게 초월 되었다면 우리의 선교적 생각도 하나님의 나라, 즉 주님의 나라 섬김에 하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선교가 지나치게 교파 주의적 선교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종 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고귀한 선교 자원들이 교파적 편 가르기에 소비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이 속한 교파에 대한 편파적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신학교 옆에 또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학교를 세우고 서로가 경쟁을 하는 모습, 네 교회 내 교회 하면서 선교사들 경쟁적 자세는 하나님의 나라 발전에 저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선교는 서로가 경쟁(Competition)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Cooperation)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몸의 지체들이 서로 누가 더 중요하다고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고,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박수를 쳐서라도 성공을 빌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의 방법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령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다. 바울은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고전 3:4).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자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세라고 말한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낮게 여기며 사역해 나가는 것이 바른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복음은 초월적 복음이 되는 것이다. 민족을 구분하지 않는 복음,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진수는 흐리지 말아야 하지만 전파 방법에는 자유와 상호 용납하는 자세가 결국은 복음으로 하나되고 하나님의 날의 시민의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를 초월해서 존재한다. 모든 국민들은 자국의 정치적

시스템에 소속되고 충성을 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국에 대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성경적 자세지만 우리의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경애심과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은 그 어느 나라에 대한 충성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느 가치보다 귀중하고 우선 되어야 할 가치라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선교사가 섬기는 나라는 우리가 발전하도록 축복하고 돕는 자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에 세워 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어야 한다.

이제, 한국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 하나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다. 자원 고갈의 시대에 상호간에 갈등 구조에서 협력 구조로 바꾸어 힘의 축적을 피하여야 할 것이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임을 깨닫고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이끌어 나가는 선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